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409

JCCT 2023-11-48

##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이경은\*, 변은경\*\*

Kyoungh Eun Lee\*,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B, Y시의 간호대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14±0.62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전공만족도( $F=11.11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주도학습능력( $r=.630, p<.001$ ), 학업성취도( $r=.532, p<.001$ )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 $r=-.206,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현적 자기애( $\beta=-.147, p=.002$ ), 자기주도학습능력( $\beta=.468, p<.001$ ), 학업성취도( $\beta=.282, p<.001$ )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46.9%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를 조절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targeted 247 nursing students in B and Y cities. Data analysis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average self-leadership of the subjects was 3.14±0.62 points, and the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 in major satisfaction ( $F=11.111, p<.001$ ).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r=.630, p<.001$ ), academic achievement ( $r=.532, p<.001$ ),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 $r=-.206, p=.001$ ).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self-leadership were identified as covert narcissism ( $\beta=-.147, p=.031$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beta=.468, p<.001$ ) and academic achievement ( $\beta=.282, p<.001$ )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6.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cessary of developing an effective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 self-leadership and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was suggested.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은 스스로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과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1]. 최근에 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 보다는 본인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과업을 달성하는 셀프리더십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2].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지전략과 행동전략을 포함하며 스스로가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다[3]. 셀프리더십 역량을 갖춘 학생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잘 이루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구분하여 자기보상 또는 자기처벌 등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진로 및 미래에 대한 준비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다[4]. 또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역량은 성공적인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책임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5].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내현적 자기가 있다. 내현적 자기는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깊은 내면에 자기에적인 성격의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으며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그 핵심 특징이다[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학생은 자신이 가진 평가 예민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특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고, 시험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8], 내현적 자기와 자기개념 명료성, 학업수행간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학습상황에서 명료하기 보다는 회피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의 취약한 측면을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응적 양상을 보였다[9]. 또한 대학생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학업성취 및 진로준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통해 학습 상황을 명료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학업성취를 위

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9]. 내현적 자기에와 셀프리더십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 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과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흥미를 갖고 동기부여를 하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1]. 최근의 의료환경은 의료진달체계의 변화, 대상자의 요구도 증가, 다양한 각종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가 습득해야 하는 전문 지식과 신기술의 양이 증가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12].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가 높고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취사선택을 통해 스스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학업스트레스, 전공 만족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14]. 또한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면 자기주도학습능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15]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지 및 행동전략인 셀프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의 다른 관련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학업성취도이다. 학업성취도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교과목 성적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 학습과제의 종류, 교수의 수업 방법 등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학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16]. 또한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교육목표가 있는 학습을 통해서 얻는 모든 교육성으로 취업, 진학 등의 진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17].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공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학과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새로운 외부의 변화나 자극에 대해 더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학업성취도는 셀프리더십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5] 학업성취도는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셀프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확인하고,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3년 5월 8일에서 6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B, Y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6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24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Ahkter와 Tomson[2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Gang과 Chung[21]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하위영역 목표불안정(9문항), 안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Gang과 Chung[21]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78-.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목표불안정(9문항) .85, 안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69,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86, 과민/취약성(10문항) .89,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85였다.

#### 2)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uglielmino[22]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SDLRS)를 바탕으로 Kim 등[23]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SDLRS-K-96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Lee[24]의 도구 58문항 중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18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18문항을 사용한 Lee와 Moon[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2였다.

#### 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vai 등[2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형식의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CAP])를 Park 등[27]이 번안한 주관적 학업성취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vai 등[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9, Park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다.

#### 4)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8]의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Kim[2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전체 247명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 185명(78.9%), ‘남학생’ 52명(21.1%)이었다. 연령은 ‘21-22세’ 111명(44.9%)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84명(25.9%), ‘26세 이상’ 41명(16.6%), ‘23-25세’ 31명(12.6%)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64명(25.9%), ‘3학년’ 63명(25.5%), ‘2학년’ 62명(25.1%), ‘4학년’ 58명(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 174명(70.4%), ‘있음’ 73명(29.6%)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161명(65.2%), ‘만족’ 67명(27.1%), ‘불만족’ 19명(7.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85	78.9
	Male	52	21.1
Age (year)	≤20	84	25.9
	21-22	111	44.9
	23-25	31	12.6
	≥26	41	16.6
Grade	1	64	25.9
	2	62	25.1
	3	63	25.5
	4	58	23.5
Religious	None	174	70.4
	Yes	73	29.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67	27.1
	Moderate	161	65.2
	Dissatisfied	19	7.7

#### 2.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의 정도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평균 2.85±0.67점, 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균 2.21±0.45점, 학업성취도 평균 3.13±0.80점, 셀프리더십 평균 3.14±0.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의 정도

Table 2. Degree of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N=247)

Variable	M±SD	Min	Max
Covert narcissism	2.85±0.67	1.14	5.0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21±0.45	1.00	4.60
Academic achievement	3.13±0.80	1.00	5.00
Self-leadership	3.14±0.62	1.29	5.00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F=5.687,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에서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나쁨’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leadership	
		M±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3.56±0.49	1.886 (.061)
	Male	3.41±0.50	
Age (year)	≤20	3.49±0.51	.735 (.532)
	21-22	3.55±0.50	
	23-25	3.60±0.53	
	≥26	3.46±0.42	
Grade	1	3.52±0.49	.451 (.717)
	2	3.50±0.57	
	3	3.59±0.48	
	4	3.49±0.43	
Religious	None	3.50±0.51	-1.488 (.138)
	Yes	3.60±0.4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sup>a</sup>	3.76±0.46	11.111 (<.001) a>b, c
	Moderate <sup>b</sup>	3.44±0.49	
	Dissatisfied <sup>c</sup>	3.42±0.37	

#### 4.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

표 4.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N=247)

Characteristics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r(p)			
Covert narcissism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01 (.115)	1		
Academic achievement	-.040 (.528)	.522 (<.001)	1	
Self-leadership	-.206 (.001)	.630 (<.001)	.532 (<.001)	1

표 5.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self-leadership (N=247)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1.703	.188		9.073	<.001
Covert narcissism	-.094	.030	-.147	-3.152	.002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61	.042	.468	8.563	<.001
Academic achievement	.265	.051	.282	5.175	<.001
Adjuste R <sup>2</sup> =.469 F=73.489 p<.001					

십은 자기주도학습능력( $r=.630, p<.001$ ), 학업성취도( $r=.532, p<.001$ )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에( $r=-.206, p=.001$ )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성취도는 자기주도학습능력( $r=.522, p<.0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셀프리더십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843-.90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10-1.387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의 통계량

이 1.96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3.489, p<.001$ ). 수정된 결정계수( $R^2$ )은 .469로 셀프리더십을 46.9%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현적 자기에( $\beta=-.147, p=.002$ ), 자기주도학습능력( $\beta=.468, p<.001$ ), 학업성취도( $\beta=.282, p<.001$ )로 확인되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14±0.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51점[14], 3.4점[30] 보다 낮았고, 같

은 도구는 아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5점 만점에 3.6 점으로 나타난 결과[31]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낮은 것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으나 셀프리더십의 향상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므로[32]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특성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33] 주장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에게 맞는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4]와 유사하고 학년, 휴학 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3]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년, 휴학 유무, 전공만족도 등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학년별 셀프리더십 학습 및 교육과 전공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2][14], 학업성취도와 셀프리더십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5][16]와 유사하다. 셀프리더십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5]와 유사하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3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결과[36],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결과[37]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축소시킨다는 연구결과[36]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조절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증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대학생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역량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37]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해 내현적 자기애를 조절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확인하고,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현적 자기애,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해 내현적 자기애를 조절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Y. S. Choi, and S. J. Won, "Effect of teacher-student interaction, self leadership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7, No. 4, pp. 69-20, 2022. DOI: <https://doi.org/10.21097/ksw.2022.11.17.4.69>
- [2] C. P. Neck, and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1, No. 4, pp. 270-295, 2006.
- [3] C. C. Mans, and H. P. Sims, "Business without bosses: how self managing teams are building high-performing companies", (1st ed). New

- York: John Wiley & Sons. 1995.
- [4] S. A. Bae, and S. Y. Su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271-292, 2016.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9.037>
- [5] J. I.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2, pp. 574-58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574>
- [6] J. U. Kim, and J. H. Kim,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 covert narcissism,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1041-1054,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1041>
- [7] S. E. Han, "The effect for school adaptability which is at high school students' covert narcissism and the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12.
- [8] I. H.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arcissistic tendency and text anxiety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2005.
- [9] H. N. Jang, and S. H. Cho, "Covert narcissism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3, pp. 85-112, 2009.
- [10] H. S. Kim, and J.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2, pp. 223-244, 2015.
- [11] E. K. Bae, and M. Y. Lee, "The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ventory for employees in HRD compan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12, No. 3, pp. 1-26, 2010.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0.12.3.001>
- [12] J. I. Lee, and I. J. Hwang,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leadership on self-leadership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2, pp. 129-139,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129>
- [13] H. S. Oh,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5, No. 2, pp. 113-131, 2017.
- [14] Y. H. Jeon, J. W. Choi, and M. S.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5, pp. 437-449, 2019.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9.05.04.40>
- [15] Y. 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2.
- [16] E. J. Hwang, and S. J. Moo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0, pp. 347-357,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0.347>
- [17] W. S. Kim, "The effects of time management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7, No. 4, pp. 1-17, 2013.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0.347>
- [18] I. T. Croghen, C. Bronars, C. A. Patten, D. R. Schroeder, L. M. Nirelli, J. L. Thomas, M. M. Clark, K. S. Vickers, R. Foraker, K. Lane, D. Houlihan, K. P. Offord, and R. D. Hurt, "Is smoking related to body image satisfaction, stress, and self-esteem in young adult?",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Vol. 30, No. 3, pp. 322-333, 2006. DOI: <https://doi.org/10.5993/AJHB.30.3.10>
- [19] S. H. Hong, J. S. Kim, and D. B. Ju,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443-450,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3.11.9.443>

- [20]S. Akhtar, and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39, No. 1, pp. 12-20, 1982. DOI: <https://doi.org/10.1176/ajp.139.1.12>
- [21]S. H. Gang, and N. W.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4, pp. 969-990, 2002.
- [22]L. 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i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GA
- [23]C. J. Kim, K. S. Kim, K. O. Yoo, and G. H. Gil, "A study on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2, No. 1, pp. 1-25, 1996.
- [24]Y. E. Lee, "Effect of the collective 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earning satisfaction among study-group participating public officia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10.
- [25]D. Y. Lee, and J. S. Moon, "Psychological safety and creative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self-directedness",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ol. 24, No. 1, pp. 31-53, 2021. DOI: <http://doi.org/10.24991/KJHRD.2021.03.24.1.31>
- [26]A. P. Rovai, M. J. Wighting, J. D. Baker and L. D. Groom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s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learning in traditional and virtual class room higher education settings",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Vol. 12, No. 1, pp. 7-13, 2009. DOI: <https://doi.org/10.1016/j.iheduc.2008.10.002>
- [27]J. H. Park, E. H. Lee, and S. H. Ba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e-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2, pp. 182-190,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2.182>
- [28]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1983.
- [29]H. S.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3.
- [30]I. S. Jung,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8, No. 5, pp. 51-58,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5.051>
- [31]E. J. Ki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12, pp. 303-326, 2014.
- [32]Y. S. Kang, Y. J. Choi, D. L. Park, and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43>
- [33]M. O. Lee, M. Y. Lee, and S. Y.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417-425, 2014. DOI: <https://doi.org/10.59771/jkasne.2015.21.3.417>
- [34]Y. S. Kim, and H. J. Lee, "The effects of creative leadership and self-leadership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 pp. 531-546,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531>
- [35]Y. H. Seo,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resilience,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Vol. 35, No. 4, pp.1156-1174, 2018.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8.35.4.1156>
- [36]E. S. Chung, "The influence of postive think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5, No. 2, pp. 113-131, 2017.
- [37]S. Y. Lee, and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3.309>



※ 본 논문은 2022년도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 교수연구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